

2017년 7월 16일 “찾아오신 예수님(33) 참된 우정 속에 열리는 교회”(요 15:9-17)

<도입>

CS Lewis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은 것이 아니다. 그런 행복은 포트와인 한병으로 얻을 수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당신이 진실로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결코 기독교를 권하지 않겠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로운 차원의 열림을 향하여 지속적 믿음과 개척하는 모험심으로 나아갈 때, 정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내 생각과 삶의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문제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오래 고이면 녹조를 띠고, 용기 표면에 물 때를 입힙니다. 물도, 물 담은 용기도 문제가 아닙니다. 고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적 신앙은 지속적 흐름의 속성을 지닙니다.

신앙은 어느 중간에 완성되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늘 **새롭게 열려가는 축복**을 얻는 여정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축복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풍성합니다. 지난 주에 이어 삶의 열매, 즉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는 일의 중심에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주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며, 맥락 안에서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무엇으로 하나되는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 하나됨.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9-10 절). 예수님은 자신이 자원하셔서 아버지 계명을 지킴으로써 아버지 사랑 안에서 친밀히 누리심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안에서 또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됨을 검증하는 길 - 11 절.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으로 나타나는가? 기쁨, 즉, 삶을 긍정하고 두려움없이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하는 힘은 사랑의 확신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삶의 힘을 얻게 됩니다. 참 제자의 표징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기쁨의 원인이 되는 사랑 더 구체적으로 친구 사랑, 우정에 대해 말씀합니다.

[2] 우정이라는 사랑으로.

12, 17 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등장. 12-17 절 사이의 요점은 참된 우정 속에서 열리는 공동체입니다.

13 절.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 예수님 사랑),

14 절. 예수님 명대로 행하면 친구가 됨.

15 절에서는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특징 설명 (읽어보세요)

서로 말을 하고 듣고 통하는 사이가 아니면 친구라고 볼 수 없죠. 예수님은 소상하게 그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친구 사이에는 부모나 혈육의 형제들에게도 말 못할 약점, 고민, 미래 계획 등 모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친구는 가족적 관계처럼 필연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인이지만 서로에 대해 자발적 전적인 용납 안에서 우정이라는 사랑의 관계는 성립됩니다.

독일 신학자 몰트만, “교회, 즉, 메시아적 친교 공동체는 친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열린 공동체” 교회의 특징이 되는 우정은 그 원천이 예수님의 우정에 있고 그분의 우정은 끼리만 나누는 닫힌 원도 아니고, 어떤 사유화된 우정도 아닙니다. **이 우정은 불의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차원의 우정은 서로의 기쁨과 아픔에 함께 참여하며 낙오된 자들에게도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의 참 우정의 본은 이것입니다.

[3] 우정: 자신을 열고 내어줌

우정은 대가를 요구합니다(13 절). 자신을 열어야 하고, 내어주는 자원함이 그것입니다. 선을 긋고 자기를 닫고 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우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배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열고 내어주는 자원하는 의사가 있는가**입니다. 아래 말씀이 감동이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16 절 해설을 붙이면

“...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우정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공동체가 항상 생명의 힘이 발휘되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필요도 못 느꼈었던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위해 구하면)
다 받게 하려함이라(서로 자신을 내어 주어줌으로 우정의 연합(하나됨)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

17 절 우정과 우정의 열매(공동체)를 이름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 서로 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과 우리 현실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우리 문제는, 죽으면 부활한다는 사실을 무수히 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죽어. 그게 살 길이야’ 그러나 자신은 죽고 살고 있습니까?

자신이 죽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직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가 자신에겐 아직 임한 현실이 아닙니다. 영적 inactive 비활성화 상태. 이 상태에선 참된 교회의 표지(불의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자원하여 하나됨)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파고 들어 그 말씀에 붙들리는 길 밖엔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정의 하나됨은 ‘자원’하는 능동성이 따라와야 하며 결코 저절로 되지 않지만, 내가 붙들리는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우정의 공동체가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권면으로>

우리가 맺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는 뜻은, 친구를 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내어줄까를 기도하고 모두 응답 받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신과 감동으로 영혼에 채워져서 영적 새로운 현실의 축복을 쟁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자신의 신앙의 현재 여정을 생각해 봅시다. 정체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진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한 진보입니까?
2. 열매 맺음은 공동체를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오늘 그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정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를 평가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또 하고 싶은 성경적 우정의 구체적인 사안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개인적 차원에서입니다.
3. 우리 교회가 21 세기에 교회됨을 방해하는 넘치는 장애물들을 넘으려면 우정이라는 사랑의 진수를 소유해야 합니다. 우정을 방해하는 것들을 안팎에서 찾아봅시다.